

# 동유럽 집시선교회(CMC Mission)

3961 Vajdacska, Tohat Ut 40, HUNGARY

Tel) +(36)-47-393-184

Mobil) +(36)-70-544-7141

email) [usmcy@hanmail.net](mailto:usmcy@hanmail.net)

수신 : 동유럽 집시선교 후원교회 및 성도님들

제목 : 집시선교 사역보고 (2021-04)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시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물질로 다함이 없이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동유럽에도 아름다운 10월,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상에는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때때로 들려오는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가 그지 없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신학교 동기 목회자 두 분이 주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한 분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계시던 분이요 다른 한 분은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던 동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하며 마음껏 집시마을을 다니며 교제를 할 수 있을지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사진 설명 (좌: 반도르 졸탄, 우: 기지케네니)



## 1. 반도르 즐리(ELTE 대학교 법학부 입학, 사진 좌)

반도르 즐리는 베츠켓 집시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피아노를 배워서 예배 반주를 하기도 했고 매주 금요일에는 학생회 기도회를 인도하였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헝가리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ELTE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헝가리 아이들도 쉽게 가지 못하는 대학교로 집시 아이로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즐리는 법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꿈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훗날 신실한 법조인으로 자신의 민족인 집시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 집시선교회 동향

### 1) 기지케 네니 소천 (사진 위)

그동안 집시선교회 안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집시선교의 동역자로 기지케네니가 74세의 나이로 신장암을 앓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이다츠카 개혁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바이다츠카 집시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특별히 동유럽 집시선교회와 동역을 하시면서 집시민족과 한국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해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펜케익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본 선교사 가족을 참으로 친가족처럼 대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역으로 인해 늘 시간이 쫓긴다고 틈틈히 음식을 손수 준비해 사역 이후 기지케네니의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니케네니의 맛있는 펜케익도 그분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도 맛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귀한 동역자 한 분을 잃게되어 참으로 가슴 아프기가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2) 김 소연 자매의 결혼예식 :

김 소연 자매는 분당우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단기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셔서 약 2년 반 동안 집시선교지에서 열심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 일들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한 이후 하나님께서 귀한 배필을 예비해 주셔서 지난 9월 하나님과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헝가리 신실한 청년으로 소연자매를 무척이나 아끼며 사랑해 주는 형제로 하나님께서 소연 자매를 헝가리로 보내셔서 집시선교를 위해서 수고를 감당케 하시고 또한 배필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봅니다.

## 3. 루미니아 미션홈 사역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펜데믹으로 루마니아 역시 많은 확진자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때때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는 문을 닫고, 호닷 미션홈(방과후학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방과후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미션홈이 아닌 집시마을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며 틈틈히 주부식을 공급하여 각자의 집에서 부족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14년 동안 식당 조리를 담당했던 이보야 아줌마가 정년퇴직을 해서 자리가 비어 있어 햄버거나 도시락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리사를 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조리사가 구해지면 다시금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배식 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일터에 나가 있는 부모들을 대신해서 집시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부족한 학업을 돕고 또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 루마니아 호닷 미션홈 방과후학교)



## 기도제목

1. 펜데믹으로 인해 흐트러진 믿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2. 7지역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직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3.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집시형제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많은 형제들이 서유럽으로, 부다페스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가운데 있음
4. 7지역 집시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헝가리 개혁교회 동역자들을 위해서
5. 루마니아 **Barlog Feren** 목사님, 우크라이나 **Barta Elemer** 목사님을 위해서
6. 10월 16일 파친집시교회 전도집회를 위해서
7.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집시지도자 컨퍼런스를 위해서
8. 최 영 선교사/ 양 애자 선교사(자녀 최 예원)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